

교회 목표

신앙한 예배
친구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진홍용 편집: 양재웅

죄짐을 지고서 곤하거든 구주께 나오라!

2011년 제1차 청지기훈련

- | 주제 |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 (딤후 1:15)
- | 일시 | 2011년 2월 25일(금) 저녁 7시
- | 대상 | 모든 성도
- | 강사 | 김성관 위임목사
- | 장소 | 충현교회 본당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열정과 헌신으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는 긍정의 힘이 대부분의 교회와 성도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없는 죄인이 라고 선언하며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사람을 선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성경을 잘 알고 가르치는 교역자들조차도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 진리를 잊고 살거나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참 생명의 길은 단순히 성경을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 속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영생의 은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인정하는 올바른 신앙의 합정에서 벗어나, 고난과 핍박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의 길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우리에게 이번 청지기훈련 주제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도록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딤후 1:15). 가장 중요한 말씀의 자리에 꼭 나아오십시오. 분명, 바른 입장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를 막겠지만 지체하지 말고 나와서 말씀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를 붙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를 위한 말씀간지인 만큼 혼자 오시길 말고, 영생의 복음이 필요한 이웃들과 꼭 함께 오십시오. 또한 말씀을 선포할 위임목사님과 청지기훈련을 준비하는 모든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청지기훈련 세부안내는 본지 7면

생명의 말씀(금요찬양집외)
열방이 이스라엘의
미래에 참여한다

구약은 열방이 그 구경꾼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림을 보여 준다(시 47:1). 어디에까지 나오는 것일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열국이 있다(시 47:8-9).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 바로 거기에 열방이 있다. 늘 시편을 노래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노래를 불렀다(시 47편). 선지자들은 이보다도 한결을 더 그 상상을 넓혔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들에 빗대면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일할 재앙을 예언하였으며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 회복될 것도 예언하였다. 그때에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포함시키셨다(암 9:11-12; 행 15:13,16-18). 이사야는 그 당시 애굽에 내려질 심판을 경고한 후에 놀라운 결론을 내렸다(사 19:19,21,23,25). 열방은 천수의 위치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에레미야 역시 열방에 같은 소망을 약속하셨다(렘 12:15-16). 열방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나 그들도 회개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 중에 포함될 수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타내셨던 구원과 공의를 다른 열국을 위하여도 행하시릴 것이다(사 51:4-5). 이 일은 여호와와 종이 감당할 것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공의가 배풀어질 것이다(사 42:1-4).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은 그가 이방을 위한 빛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는 일이다(사 45:22, 49:6). 이것이 구약이 지체해 온 이야기의 끝이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구약에서 끝나지 않았고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스라엘의 종말적인 소망은 자신들의 역사가 열국의 역사 속으로 흘러 들어가며, 열방이 새로운 시대, 새 창조조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포함한다(사 23:18). 학개 선지자는 만국의 부요함이 그 부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올 것을 상상하였다(학 2:6-9). 이러한 기대는 요한계시록에서 보여 지는 환상을 통하여 뒷받침 된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새 창조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에, 구원 밖에 있는 나머지 인류들의 가치와 의미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무엇인가를 공헌한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이다.

바울은 이 비밀이 특정한 한 사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통하여 모든 열방에 우주적인 구원이 이르는 길을 열어 주셨다(갈 3:6-9; 롬 2:12-13, 19). 이 은혜는 이제 유대인에게나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 이방인들도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언약, 율법, 예배, 약속 등등 메시아의 조상들이 누렸던 그 모든 것에 동등하게 편입된(롬 9:5). 그러므로 이방인이었던 그리스도인은 두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다. 한편으로는 이방 나라였던 민족의 전통과 문화의 역사를 가졌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역사, 즉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에 접붙여진 자로서의 역사 안에 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게 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사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까지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됨을 기록하였다(행 1:1).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그 때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모든 사람이 주께로 나올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모든 열방의 역사의 목표다(갈 3:28). 마태복음 1:1-17에 기록된 이야기가 어디에서 일치하던 간에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요, 또한 우리의 이야기이다(갈 3:29). 아멘.

REAL SATISFACTION

***(14) From men with Your hand, O LORD, From men of the world, whose portion is in this life,
And whose belly You fill with Your treasure; They are satisfied with children,
And leave their abundance to their babes. (15) As for me, I shall behold Your face in righteousness;
I will be satisfied with Your likeness when I awake.***

(Psalm 17:14-15)

Many Christians are content with their blessings in this life. They are satisfied with leaving their earthly wealth to their children, "From men with Your hand, O Lord, from men of the world, whose portion is in this life, and whose belly You fill with Your treasure; they are satisfied with children, and leave their abundance to their babes" (Ps. 17:14). David, a true spiritual man, didn't want that. He wanted real satisfaction. Today's message comes from his psalm about prayer, protection, and perfection. He begins, "Hear a just cause, O Lord, give heed to my cry; give ear to my prayer, which is not from deceitful lips" (Ps. 17:1). David prays sincerely, he really wants his life to be clean. He asks God, "Keep me as the apple of the eye; hide me in the shadow of Your wings" (Ps. 17:8). He seeks God's protection from wickedness. He looks forward to perfection in meeting his Lord, "As for me, I shall behold Your face in righteousness; I will be satisfied with Your likeness when I awake" (Ps. 17:15). Many people find satisfaction in this world with success, fame, monetary wealth, and so on. All these things cannot bring permanent satisfaction. Problems and dashed dreams can sometimes even keep the faithful from being satisfied here and now. When will we truly experience real satisfaction?

We will experience real satisfaction when we see Jesus Christ. David prayed, "As for me, I shall behold Your face in righteousness" (Ps. 17:15). This hope sustained David during serious trials. It sustained him when the wicked oppressed him. It sustained him when he was surrounded by deadly enemies. This precious hope also helped Job when he lost everything. In his terrible affliction he looked forward to seeing his redeemer, "As for me,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and at the last He will take His stand on the earth. Even after my skin is destroyed, yet from my flesh I shall see God; whom I myself shall behold, and whom my eyes will see and not another" (Job 19:25-27). This great hope even strengthened him when he was condemned by his friends. Do you have this blessed hope for the future? Those who will be afraid when they see Christ will be sad, but those who will be satisfied when they see Christ will be happy.

We will experience real satisfaction when we resurrect. David prayed, "when I awake" (Ps. 17:15). David lived his life assured of his coming resurrection. He knew that when he closed his eyes to death here he would open his eyes to life in heaven. When you come to the point in your life where you must breathe out your last breath, please don't cry or be frightened because you will awake. David believed that if his enemy killed him by his faith he would rise again. He knew that when others buried him

he would come out from the grave. It's with this knowledge that he wrote songs to sing and praise the Lord. When Jesus died some of His followers came to His grave crying, and the angels asked them, "Why do you seek the living One among the dead? He is not here, but He has risen" (Lk. 24:5-6). Our Lord arose and so shall we! He was the first fruits of the coming resurrection, "But now Christ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the first fruits of those who are asleep" (1 Cor. 15:20). Your hope of resurrection removes death's sting, "O death, where is your victory? O death, where is your sting? the sting of death is sin, and the power of sin is the law; but thanks be to God, who gives us the victory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Therefore, my beloved brethren, be steadfast, immovable, always abounding in the work of the Lord, knowing that your toil is not in vain in the Lord" (1 Cor. 15:55-58). Our future victory over the grave gives us amazing peace.

We will experience real satisfaction when we are like Jesus Christ. David prayed, "I will be satisfied with Your likeness" (Ps. 17:15). When we rise we will be like Jesus, "See how great a love the Father has bestowed on us, that we would be called children of God; and such we are. For this reason, the world does not know us, because it did not know Him. Beloved, now we are children of God, and it has not appeared as yet what we will be. We know that when He appears, we will be like Him, because we will see Him just as He is. And everyone who has this hope fixed on Him purifies himself, just as He is pure" (1 Jn. 3:1-3). My real satisfaction is yet to come, but when it does it's going to be awesome! I'm going to awake at the sound of the trumpet. I'm going to awake to everlasting joy because I will arise in Jesus Christ's likeness. The anticipation of being like Jesus brings light to dark days. This purifying hope gives victory over temptation, and brings encouragement after failure.

My dear friends, are you tired of searching for things to satisfy you? Come to Jesus and end your fruitless quests. Jesus Christ gives salvation, hope, and ultimate satisfaction. Please accept His invitation and find the One who will completely satisfy your soul. Jesus said, "I am the bread of life; he who comes to Me will not hunger, and he who believes in Me will never thirst" (Jn. 6:35). Right now you should make a choice. Jesus will give you beautiful freedom. With your faith in Christ, you can pray and God will answer. God will protect you in Christ. God will give you perfect satisfaction in Christ. How blessed are those in Christ! We are living in two worlds, this world and the eternal world. When you receive eternal blessings you will have real satisfaction. Amen. ■

진정한 만족함

¹⁴“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 주는 자니이다” ¹⁵“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켈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17:14~15)



김성관 목사

미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삶에서 누리는 축복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 주는 자니이다”(시 17:14). 그런데 참 믿음의 사람인 다윗은 그와 같은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 만족을 원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기도, 보호 그리고 완성에 대한 그의 시편에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이 주의하소서 거짓 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시 17:1)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윗은 정말로 자신의 삶이 정결해지기를 원했기에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를 농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에 그들 아래에 감추사”(시 17:8)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사악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찾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날 때 완전해지기를 갈망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켈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시 17:15). 많은 사람이 성공, 명예, 금전적인 부 등등 이 세상에서 만족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은 영원한 만족를 줄 수 없습니다. 문제들과 꺾인 꿈들은 때때로 신자들조차도 지금 이순간에 만족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는 참 만족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참 만족를 경험할 것입니다. 다윗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시 17:15)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소망은 다윗이 심각한 시련을 받는 동안 다윗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사악한 자들의 압제와 악한 원수들에 의해 핍박을 받는 동안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귀중한 소망은 용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도 그를 도왔습니다. 끔찍한 고통 속에서 그는 그의 구속자 보기를 갈구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라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낫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욥 19:25~27). 이 위대한 소망은 친구들의 비난을 받았을 때에도 그를 더욱 강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장래에 관한 이 은총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볼 때 두려워할 사람들은 슬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볼 때 만족할 사람들은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부활할 때 우리는 참 만족를 경험할 것입니다. 다윗은 “켈 때에”(시 17:15)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장차 부활을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죽어 눈을 감았을 때 이내 천국에서 눈을 떠 살아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삶의 마지막 순간이 올 때 아무조록 울거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러분이 깨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설사 그의 원수가 자신을 죽여도 믿음을 다스리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만약 죽음을 매장하더라도 무덤 밖으로 나올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았기

에 다윗은 시를 써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제자들 중 몇몇은 울면서 그의 무덤에 왔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그들에게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눅 24:5~6)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있을 부활의 첫 열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전 15:20). 부활에 대한 여러분의 소망은 사망이 쏘는 것을 없애 줍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이라”(고전 15:55~58). 죽음에서 승리할 우리의 미래는 우리에게 놀라운 평화를 줍니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때에 우리는 참 만족를 누릴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시 17:15)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아질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한 이라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일 3:1~3). 우리의 참 만족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것이 올 때 아주 멋진 것입니다! 우리는 나팔 소리가 날 때 깨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 깨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 기대는 어두운 나날들에 빛을 비추어줍니다. 이 순결한 소망은 유혹을 이기게 하며 실패 후에도 용기를 갖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족시켜줄 것들을 찾는 데 지쳤습니까? 예수님에게로 오십시오. 무익한 탐구를 멈추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소망, 무한한 만족을 주십니다. 제발, 그의 초대에 응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완벽하게 만족시켜 주실 한 분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 6:35)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더할 나위 없는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깨어날 기도를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만족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지요! 우리는 이 세상과 영원한 세상, 즉 두 세계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은총들을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은 참 만족를 얻을 것입니다. 아멘. ■

십자가 복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예수님은 정말로 죽어야 했던 바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다. 외식과 위선으로 포장할 수 있는 '위하여'의 죽음이 아닌, '대신하여' 예수님은 죽으셨다. 우리의 악독한 본성이 예수님을 반드시 죽게 해야 했던 것이다. 이 얼마나 악한가? 한 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버리고 따랐던 제자들, 그중 가롯 유다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배신하였다(눅 22:47~48). 그는 후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은 채 자살하였다(마 27:4~5). 이 모습은 악살들의 반역을 도왔던 아히도벨의 비극적 종말과 비슷하다(삼하 17:23). 또한,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고대하며 하루 종일 율법을 연구하고 예배하였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민족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로마정권과 협력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마 27:1~2 ; 눅 23:8, 11~12). 오히려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놓아 주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다(눅 23:4, 14~15, 22~23). 그들은 일심으로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살인자 바라바를 선택하였다(행 3:14). 이스라엘은 절대로 하나로 연합하기 힘든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데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마치 하나가 되어 바벨탑을 건설(창 11:1~6)하는 인류의 모습과도 같다. 이토록 악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다. 십자가에서 눈을 떼는 순간 우리는 세상 안에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 우리는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메시아의 죽음 66

깨어 기도하라

옛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파곤에 지쳐 잠들어 있었다. 이것은 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인연이로 육신이 약하다(마 14:38, cf. 마 26:41)라고 말씀하셨다. "깨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종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지만 이들을 향한 계획과 소망이 있었기에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인간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영적 밤은 반드시 찾아온다. 이때 해야 할 일은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구약성경을 보면 깨어 기도하였던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고라 자손의 시로 알려진 시편 42편에는 모세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모세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40년간 누런 애굽 왕자로서의 지위를 버렸지만 그의 노력은 실패하였고 결국 살인자의 신분으로 광야로 도망하였다. 무려 40년 동안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낮의 뜨거운 열기를 마시는 목자로 살았다. 이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도 백성들로 인해 고달팠다. 이때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므로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로다"(시 42:8).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위협을 피해 홀로 도망자의 삶을 살던 다윗도 깨어 기도할 뿐이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나"(시 63:6). 환난 중에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간절히 부르짖었다(시 77:1).

● 바라바를 대신하여 죽었다

예수님은 바라바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바라바는 당대 살인을 저지른 유명한 악인이었다. 객관적 기준으로 보아도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가 죽을 죄를 지은 것이 확실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당시 법정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선택은 바라바였다. 결국 하나님의 신인이라고 자부하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의 주' (the author of life)를 죽게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며 생명의 창시자인 예수님은 바라바, 곧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롬 3:23). 이로 말미암아 죄인들은 놀라운 은사를 입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벧전 3:18).

● 군중은 바라바를 살리고 그리스도를 죽도록 요구한다

"우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눅 23:18). 군중은 한 목소리를 내었다. 자신들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알았지만 그들은 분위기에 휩쓸려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했던 것이다. 더 나아가 이 무리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지 어다"(마 27:25)라며 함께 책임을 지겠다고 큰 소리쳤다. 그들은 빛 앞에 있었음에도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요 3:19).

●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을 놓아 주시기 위함이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마 27:26).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바라바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죄에 빠진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 죽음은 영원한 죄의 사슬을 끊어 모든 죄인들에게 자유를 주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지금 우리 앞에 부인할 수 없는 빛이 있다. 그럼에도 어둠을 더 사랑하여, 어둠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눈에 빠져 허덕이고 있지 않은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갈보리의 예수님께 모든 초점을 고정한 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자. 영원히 소망이 없던 죄인들(사 53:5~6)을 대신하여 예수님은 죽으셨다. '대신하여!' 아멘.

인간이 모인 그 자리에 마귀는 항상 역사하여 문제를 일으킨다. 교묘한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은 깨어 기도하는 것뿐이다. 기도를 해야만 영의 눈이 떠져 분별할 수 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이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느니라"(시 3:4). 십자가의 길은 좁고 험하다. 따라서 십자가를 붙들지 않은 채 화목하려고만 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화목을 가장한 사탄의 속임수에 분별하는 기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십자가를 잃어버린 제자들은 가장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중요한 순간에 잠들었다. 이와 같이 빛의 자녀들도 어둠의 영향을 받을 때 영적 잠에 빠지게 된다. 우리는 '주야로 깨어 기도해야 한다'(눅 2:37; 딤후 5:5). 고난 중이라도 기도해야 한다. '환난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리라'(행 16:25).

기도의 목적은 종말적이며,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전 10:13). 모든 시험은 미쁘신 주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다. 시험보다 더 위험한 것은 시험을 이긴 후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다. 시험을 이기고 나면 시험에서 이긴 자신의 경행을 앞세워 자신에게서 대담을 찾으려고 한다.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 후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러나 더 사랑하는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전 10:14). 깨어 기도하는 모습은 곧 자기 부인이다. 세상에서의 행동을 구하는 기도를 버리고 인내의 말씀(계 3:10)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자. 아멘.

* 매주 월요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행 13:2~3). 지금까지 네번의 선교를 다녀왔지만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나의 가슴을 떨리게 하며 많은 생각을 품게 해 준 이 말씀이 가슴에 남아 나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다. 그동안 단기선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기도와 말씀을 묵상했지만 그에 따른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한 금식과 기도는 매우 부족했음을 고백한다.

금식을 통해 다시금 주님의 도우심과 전적인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나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 기쁨을 누리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는 것을 다시금 깨달은 시간이었다.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주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접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지만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님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 깊이 품었다. 선교일에 도착했을 때 우려했던 모든 것을 이미 주님께서 예비하신 우리는 그날 주님의 복음만 전하면 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다시금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깊이 묵묵하는 시간이었다.

유재성(집사, 22교구)

나도 울고, 그녀도 울고, 성령님도 우셨다

사역 기간 동안 비가 오는 날이 많았다. 우산을 쓰고 현지인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갔다. 어떤 할머니는 로마 가톨릭을 믿는다고 하셨다. 문 앞에는 나뭇잎과 짐승 똥로 된 각종 우상이 있었고, 십자가도 그려져 있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은 없으니 우상이 되는 저런 것은 폐차고 편편하였으나 고개를 흔들며 거부하셨다. 논쟁을 피하고 돌아오면서 할머니를 위해 주님께 기도하였다.

무슬림 지역으로 축조전도를 나갔다. “두려워하지 말라. 열려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마을 어귀에 내렸다. 초등학교 내 명에게 전도지를 읽어 주고 “예수님을 믿겠니?”라고 물으니 “오케이”라고 했다. 너무 반갑고 감격스러워서 성령께 도움을 구하며 이들이 주님에게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간구했다. 그러나 부모들의 방해로 중간에 멈출 수밖에 없었다. 실망이 되었지만 우리는 다시 주님이 택하신 영혼이 있을 거라 믿으며 어느 허름한 집으로 들어갔다.

예닐곱 명의 아이들과 여인이 있었다. 예수님을 전하자 대뜸 자신은 무슬림이라고 했다. 주님의 자녀로 조상들이 물려 준 무슬림의 대물림을 그녀도 이어 받은 것이 안타까워 강하게 메시지를 선포하였다. 순간 나는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평소의 무뎉툰한 말이 아닌 유유히 음성으로 전도지를 읽어 주었다. 그녀는 주님을 믿겠다고 하였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고 있었다. 아이들과 그 여인이 주님을 진정으로 믿기를 바라며 성령님께 간구하였다. 환경은 다르지만 흡사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 같았다. “주님! 여기 이곳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심정을 가진 병든 영혼, 죽은 영혼, 진노의 자녀를 받아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구원해 주세요.” 말없이 헤어질 때 어느새 나도 울고, 그녀도 울고, 성령님도 우셨다. 구원의 기쁜 눈물이 그날 내리던 비보다 더 세차게 내심령을 적시었다. 주님, 감사해요!

최미자(집사, 7교구)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2개 팀)

기 간	팀	팀 장
2월 18일(금) ~ 2월 25일(금)	중동부 2팀	김영진
2월 18일(금) ~ 2월 25일(금)	중동부 3팀	정복진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2월 8일(화) ~ 2월 16일(수)	24교구 1팀	황순하



나는 없어서이고

선교일기

소직 주님만 드러내는

사역 1일차 9명의 대원들은 오직 성령만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선교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이 허락하신 곳으로 나아갔다. 2시간의 비행 후 7시간을 기다려 시외버스로 몸을 싣고 만남 영혼을 생각하며 사역지로 출발했다.

사역 2일차 사역지에 새벽에 도착하여 약간 피곤했지만 성령의 인도대로 나아갔다. 성령님은 우리를 중학교로 인도하시어 한 초선측 자매를 첫 번째 예배된 영혼으로 허락하셨다. 또 현지 교회를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어 성전 등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다.

사역 3일차 평온한 시골로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님은 지체장에게 2명을 만나 기도하게 하셨다. 그 기도를 통해 두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고백하였다. 성령님의 계획된 사역에 감사드리며 하루의 사역을 마감했다.

사역 4일차 사역이 너무 순조롭게 진행되어 기쁜 마음으로 마지막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 갑작스런 공간의 출현으로 긴장을 했지만, 그의 눈을 가리시어 우리 일행을 지나치게 하셨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신 주님의 계획에 절대적 앙락하시고 통성기도 후 사역을 마쳤다.

사역 5일차 사역에 동역하는 운전기사의 동생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님! 합심해서 통성기도를 한 뒤 그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결단하는 현장에 있게 하신 성령님을 찬양하며 사역을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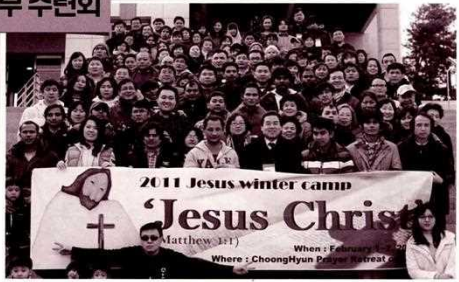
사역 6일차 초선측 마을로 인도하신 성령님은 그들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 함께 찬양하게 하셨다. 한국에 있는 자녀에게서 전화가 오면 꼭 교회에 출석이라고 하겠노라고 약속한 어머니가 무엇 때문에 이곳까지 왔는지 우리에게 물으셨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차매를 만나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했다. 그의 마음을 열어 주심에 감사하며 사역을 마쳤다.

사역 7일차 거룩하고 복된 날 선교지에서 주일성수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하다. 주일예배 때 사역 둘째 날 만난 차매의 어머니가 예배에 참석해 함께 주님께 영광을 드렸다. 그분의 신앙 간증과 기도제목을 가지고 팀원과 통성기도를 하며 감사가 넘쳤고, 그분 말씀대로 나는 없어서이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중이 되길 기도했다.

사역 8일차 주님의 은혜로 사역을 마치고 내일이면 고국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지금 내 가슴은 무언가 안타깝다. 꼭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곳에 두고 가는 것 같다. 그동안 만난 천아보다 귀한 영혼들을 위해 늘 기도자로 살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일은 주님이 마시고 그 영광은 주님께 있다고 고백했다.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자가 되게 마실 줄 믿는다.

윤병식(장로, 8교구)

외선부 수련회



내가 죄인이지만

외선부 수련회에 처음 와서 내가 죄인이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시작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외국인들이 충천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우리 몸골 형제 자매들을 불러주시고 수련회 기간 동안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시크나, 몽골)

예수님의 낙원



얼굴을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 사람들과 함께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며 즐겁게 수련회를 보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행복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낙원에 온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교회에 올 때마다 예수님이 친절하게 나와 함께 있어 주시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겁고 믿음도 하루하루 커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는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말씀을 더 많이 들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입니다. 저는 외선부 학생과 선생님 모두가 함께, 이 좋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선, 중국)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

수련회의 만 하루의 시간이 바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주님이 정말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년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 기도해야 할 때 마다 제가 마치 천국에 계신 주님의 품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주님의 복음, 찬양, 공동체 훈련 등 모든 프로그램이 저에게 은혜스러웠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산과 숲, 나무들과 자연은 형형색색 하나하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많은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예나, CSI)

예수님의 권능의 손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로 감사가 넘쳤던 외선부 겨울수련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고,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고,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무리 되었던 준비기간. 역시 주님은 항상 우리가 모이는 예배의 장막에 계시다. 매년 열월 연휴에 외국인 형제 자매들을 초청하여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잔치에 함께 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기쁨이 넘치는 자리인지 아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잔치에 초대받았어도 거부했던 수많은 외국인 형제 자매의 삶을 보았을 때 좌절도 되었다.

그러나 집회시간의 짧고 강한 복음의 메시지(마 19:24~26)에 우리 스스로의 무익한 모습과 교만한 모습은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되었다. 예수님의 권능의 손길이 외국인 형제 자매들의 상한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기도 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성령 아버지의 깊은 탄식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늦은 저녁 시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외국인 형제 자매의 밝은 미소 가운데 '예수님은 과연 누구일까?' 하며 갈급한 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온 귀한 영혼을 주님은 정말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풍성한 삶의 나눔과 풍족한 사랑의 섬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함을 더욱 많이 내려주셨으리라 확신한다.

(이현숙(교사, 외선부))



사랑하는 위임목사님께

저는 리교구 박연자 집사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몇두 번도 더 찾아가서 인사 드리고 싶은데요. 매주일 강단에서만 뵈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깜짝 놀랐어요. 두 번씩이나 우리 같은 죄인의 가정에, 병원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간병하느라 힘들어서 그때 조금 낙심 할 뻔했거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에도 또 귀하신 장로님들 보내셔서 정말 꼭 필요한 선물도 주시고... 목사님께서 후미지고 구석진 곳에도 마음을 써 주시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때 새삼 결심한 것이 '구역'을 섬기고 있지만 이전보다 더 잘 돌아야 하겠구나! 헌금위원도 더 기쁘고 즐겁게, 장년부도 더 말씀 사모함으로 해야겠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2010년도도 숨 가쁘게 달려오신 목사님이시는데, 주님 안에서 오노에야 평지를 쓰네요. 작년 7,8월은 간병으로 바빴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 선교 다녀오게 하신 기적을 체험하고 교구찬양연수, 크리스마스, 신년예배를 통해 매 순간 동행해 주셨던 예수님이 많이 좋았고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깨어지고 낮아지고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

게 해 주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

일순이 어늘해도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성찰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1월 둘째 주에 새 신자 언니의 26살된 큰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했어요. 너무 기뻐요. 이제는 남은 때를 목사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2011년에도 어디든 보내시며 가고, 오라시며 오는 그런 사람이 되게요. 이번에도 저는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만 더 100배 의지하고 맡긴 것밖에 없어요. 감침사님은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교회에 몇 번 나왔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주님의 은혜가 충천교회 위에, 선교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함께 해 주시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또 멀찍이 2층(금요찬양집회)과 1층(3부예배)에서 뵈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랑의 빛만 잔뜩 잔 박연자 올림

청지기훈련 준비는 이렇게!

2011년 첫 번째 청지기훈련이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열린다. 온으로 중대한 청지기훈련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다음과 사명을 중심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들 준비에서부터 보혈로 중대한 은혜를 누리려 보자.

말씀 준비

1. 주제 기억하기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며'
2. 주제성구 암송하기 디모데전서 1장 15절 '새 단막으로 나누어서 암송하시요'
·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며
·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 죄인 중에 내가 가나니라
3. 주제성구 이해하기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기록한 성경 중 한 권이다.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로 인해 화려한 복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이지만, 흔쾌한 이 세대를 살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주님의 말씀이다. 특히 이번 청지기훈련 주제성구인 1장 15절은 복음을 전하는 핵심적인 말씀이다. 담박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 복음을 붙들며 자신의 정세상을 잃지 않는 바울의 고백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이다 확실하다.

기도 준비

1. 매일 기도하기
· 할 복음이 필요한 모든 주의 자녀들이 청지기훈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 화 중현의 모든 성도가 청지기훈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 수 말씀을 선포하실 위임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 목 청지기훈련을 준비하는 모든 일꾼들과 위원회의 섬김에 애수의 흔적인 남게 하소서.
· 금 청지기훈련이 성령 충만한 복음의 전지가 되게 하소서.
· 모든 성도들이 청지기훈련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2. 하루 또는 한 끼 금식하기
·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하루 또는 한 끼 금식하며 위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
· 주를 섬기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행 13:2).

청지기훈련 시 함께 드릴 찬양을 개인·구역·교구별로 준비하여 온전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한다. '최고'는 아니지만 '최선'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주님은 원하신다. 모든 찬양곡은 청지기훈련 교안에 삽입되어 있다.

1. 놀라운 주님의 큰 은혜(찬송가 251절)
2. 거룩하시니(송환찬양곡집 25)
3. 그 옛날 부귀의 줄(송환찬양곡집 14절)
4. 거룩한 성(송환찬양곡집 3절)
5. 죄짐을 고치고서 굳게(찬송가 538절)
6. 생명의 왕(송환찬양곡집 373)
7. 바벨론(송환찬양곡집 32절)

찬양 준비

청지기훈련을 기다리는 성도들(청년1부)

1. 이번 청지기훈련의 말씀인 디모데전서 1:15에서 '죄인 중의 괴수'라는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게 하는가?

- 온에 (김요한)
· 죄인 중의 괴수 중에 괴수. '죄인 중의 괴수'라는 바울의 고백을 듣고, 믿은 후에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생겼다고 축복이라고 생각하기에 즐겁고, 감사할 뿐이다. 가장 아름다운 말이다. (후원석)

2. 청지기훈련을 통해 소망하는 은혜가 있는가?

- 내가 죄인인 것을 한 번 더 깨달아 그 사실로 인해 은혜받길 기대하고 있다. (김요한)
· 모든 은혜가 그러하듯 추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친화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날 수 있길 소망한다. (후원석)
· 십자가에 대한 확실함과 예수를 구주로 신인하는 진정한 믿음이 생길지 바란다. (서예민)

3. 청지기훈련을 앞두고, 바라는 점이 있다면?

- 바울은 회심한 후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역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가 '죄인 중의 괴수'라는 고백을 하게 된 이유를 알고 싶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지만, 죄의 등급이 있는 건지 궁금하다. (이보람)

4. '청지기훈련'으로 5행사를 지어본다면?

- 청: '청지기훈련'이 뭐지 아세요?
- 지: 지금! 설명드릴게요.
- 지: 기쁨으로 주님과 일에 동참하는 자가
- 문: 훈련받는 귀한 날이랍니다.
- 연(연): 연(연)3회 있는 은혜의 자리! 모두가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이보람)

청지기훈련 좌석

본당 1층 좌석배치

강 단									
2 교구	24 교구	1 교구	22 교구	17 교구					
4 교구	11 교구	6 교구	14 교구	16 교구	12 교구				
방문 자비		예배 대부		13 교구	13 교구				

본당 2·3층 좌석배치

18 교구	10 교구	23 교구	9 교구	8 교구	21 교구
15 교구	5 교구	3 교구	20 교구	7 교구	19 교구

안내

- 이번 주 화·금요일 기도원 집회, 수요일 중현전도대원훈련 및 금요구역 예배는 습니다.
- 탁아부(실신교관 1층, 작은 방: 0~3세, 큰 방: 4~7세)을 운영합니다. 어린이와 같이 참석하실 분은 영아부(실제1교육관 1층, 3세 이하) 및 베다 나홀(본당 1층, 8세 이상)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통로에 주차하신 분은 서둘러 차량을 이동하시고, 차량안내부의 모든 지시에 적극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는 반드시 차량안내부의 지시에 따라 교회 주차장에 하차시요, 교회 주변 도로에 주차 시 주차장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견인될 수 있습니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청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명	교육과정	교구	인도자
1643	최성민		1	
1644	배현주		1	
1645	최현영	초등1부	1	
1646	최하경	영아부	1	
1647	하옥성		1	
1648	오재실		1	
1649	하은	유아부	1	
1650	박민복		1	
1651	이보미		1	
1652	박하울		1	
1653	양윤재	영아부	9	
1654	정희준		1	임혜은
1655	홍성연	영아부	17	오명준
1656	김현민	영아부	17	박성명
1657	김현하	영아부	9	박영준B
1658	김진하	영아부	12	배종학
1659	박미란		9	박영준B
1660	김광진		9	박준근
1661	김진희		9	박준근
1662	송성진	초등1부	6	신준하
1663	인기자	영아부	3	
1664	정현호		17	심정래
1665	신영숙	소망부	18	김성자
1666	황수홍	외선부	25	채은미
1667	이보라	대학부	13	황영희
1668	최희영	영아부	10	장승규
1669	이경민	청년1부	18	위갑순
1670	남기훈	청년1부	24	송문식
1671	윤재홍	대학부	2	이희연
1672	박성진	고등부	12	최규옥
1673	김도록	영아부	3	노연숙
1674	최영준	영아부	6	정예희
1675	이윤환	영아부	9	홍순길
1676	두수연	영아부	3	오지은
1677	이종호	영아부	22	윤지원
1678	권혜민	초등2부	23	문한나
1679	김진성	청년1부	15	유정숙
1680	고정석	영아부	9	김은옥

